

로마서: 믿음의 삶. 9주차 “독립투사들을 위해”

보 스텐 브래디 목사

로마서 6장

지난 주에 Brad 목사님은 죄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죄는 살롬과 구별되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롬은 완전함,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아름다움, 영광, 명예, 사랑, 화해, 전쟁, 기근, 질병, 죽음, 눈물, 고통, 상실, 애도, 장례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 문에 자물쇠도 없고, 경찰관도 없고, 감옥도 없고, 군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롬”

살롬은 또한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빠진 것이 없고 부서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보된 우리의 내적이고 영원한 감각은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는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료... 단호하게. 이것이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살롬입니다. 평화에 자유. 기쁨에 자유. 무료로 사랑합니다. 아름다움과 용감함, 그리고 삶에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은 죄와 죽음의 교리에 대한 텍스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획득되고 활성화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사진): 시스티나 예배당 - 마이클로엔젤로. 이것은 재능인가 재능인가? 예. 그는 재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훈련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재능이 있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는 선물인가 기술인가? 예. 둘 다입니다.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는 “우리는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은 매우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자유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종이 아님”입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죄를 노예와 동일시할 때 그것이 얼마나 진지하게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21세기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노예가 아닌 것은 타고난 권리와 선물처럼 보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의 노예는 교활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23절에서 15번 죄를 종살이로 언급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로 얽매인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마다 죄에서 해방됨이라. 로마서 6:6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실 줄을 우리가 아노니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 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나 그가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8-10

그것은 모든 선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 악한 욕심을 좇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도리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의의 도구로 그에게 바치십시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6:11-14

먼저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신 다음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궁극적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은혜를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추구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모든 것에 퍼져 있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시키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자유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런 것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삶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그 과정에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선물이고 자유는 기술입니다. 재능과 기술의 공통점은 결정입니다. 선물을 개봉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을 제공할 것인지 파악하기로 결정하거나 자유를 실천하기로 결정합니다.

델러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제자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인간성의 여섯 가지 요소인 우리의 몸, 영혼, 관계, 생각, 감정, 결정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번 주에 이 방에 있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마 많은 손을 가졌을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얼마나 많이 운동했는지" 다른 번호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았고 감정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35,000번의 결정을 내리고 결과의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놀랍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발이 걸거나 손이 움직이는 방향을 선택하는 우리의 힘. 신명기 31장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참으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죽음과 삶은 종종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재미있는 것으로 보고 순종을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분의 규칙 중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다고 암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킬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자유로이 살기로 한 결정이 우리 손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969 - 마틴 셀리그먼. 학습 된 무기력. 개들은 그들이 고통의 노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탈출구가 없는 사악한 동물 실험 센터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바로 그것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를 노예와 동일시하면서 바울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무력함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살롬의 선물을 받은 데 만족하고 자신의 속박에 가담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상자에서 벗어나 살롬, 자유를 향해 움직이게 합니까? 아마도 몇 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를 확보하고 자유의 기술을 키우기 위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비전, 용기, 은혜

비전

“당신의 영원한 운명은 우주적 은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지도력 아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규모로, 결실과 즐거움의 계속 증가하는 주기와 함께 엄청나게 창의적인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예언적 비전입니다.

용기

자유는 단순히 죄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신은 전기 충격이 아닙니다. 신은 우리와 함께 상자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다시 배우도록 도와줍니다.